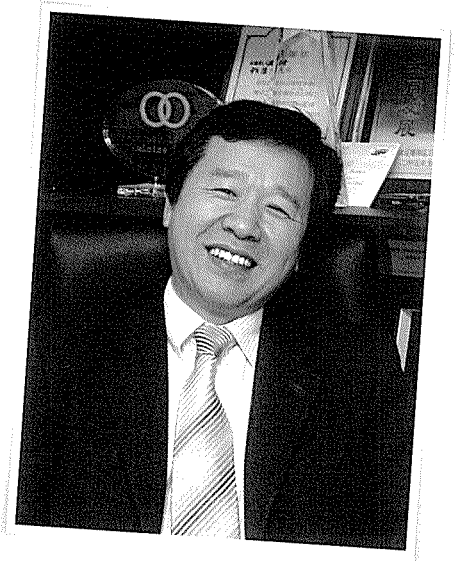


“ 지금부터 우리는 또 다른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에 나선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과거의 모습만을 고집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 이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끊임없는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반복 속에서 발전해왔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의 원리로 정의 내렸습니다. 무언가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투지와 노력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밑바탕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험난한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멸망해 버렸지만, 거꾸로 이리저리한 도전을 받아 이에 맞서 이겨낸 문명은 지금껏 찬란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정과 다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와 제과인 생존권 보호를 외치며 시작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발을 내딛을 때만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만 제과인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지금처럼 자본의 논리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내세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우리의 투쟁은 누가 봐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맞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마케팅이 대기업 사이의 ‘윈-윈(win-win) 전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당연한 듯 활개치고 있을 때 우리 제과인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그들의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껏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패배의식 속에 파묻혀 있기만 했다면 더 이상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 제과인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

려온 단결된 투쟁과정과 오늘의 승리를 통해 우리 제과인은 ‘몽치면 된다’는 자신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과인 여러분! 승리를 기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닌 고작 절반의 승리를 거뒀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또 다른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제과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만을 고집하려할 때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휴카드를 탓하며 한숨만 짓던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제과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을 거울로 삼아 ‘홀어지면 죽고 몽치면 산다’는 단순하지만 값진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42.195km 레이스의 출발선상에 선 마라토너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매듯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해 6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단결된 힘을 보여준 10만 제과인 여러분께 비상대책위원회 8명의 공동위원장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과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이동통신사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비상대책위원회 최원도 위원장